

# 국 어

## 1.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 ‘ㄴ, ㄹ, ㅇ’은 유음이다.  
 ㉡ ‘ㄱ, ㅋ, ㆁ’은 연구개음이다.  
 ㉢ ‘ㄷ, ㅌ, ㅌ’은 치조음이다.  
 ㉣ ‘ㄱ, ㆁ, ㄴ, ㄷ’은 후설모음이다.  
 ㉤ ‘ㅅ, ㅆ, ㅎ’은 마찰음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2. 다음 중 호칭어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남편의 누나 → 형님  
 ② 남의 살아계신 아버지를 일컫는 말 → 춘부장(椿府丈), 춘장(椿丈), 춘당(椿堂)  
 ③ 누나의 남편 → 자형  
 ④ 자신의 살아계신 어머니를 일컫는 말 → 자당(慈堂)

## 3. 다음 사잇소리 표기 단어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댓값      ② 나랏님  
 ③ 전셋집      ④ 만뚝국

## 4. 다음 훈민정음 제자원리 중 기획자에 해당하는 글자가 아닌 것은?

- ① ㅂ      ② ㅈ      ③ ㄹ      ④ ㄷ

## 5. 다음 중 키노드라마(kino-drama)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연극과 영화를 결합하여 하나의 줄거리를 이끌어 가는 극이다.  
 ②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지 않고 독서를 위해 쓴 희곡이다.  
 ③ 원래는 음악을 반주로 한 오락적인 서민 연극을 가리키는 용어였지만, 현재는 주로 일상사를 바탕으로 하여 오락성을 제공하는 통속적인 극을 말한다.  
 ④ 주인공의 행복이나 성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행복한 결말을 맺는 극이다.

## 6. 다음 중 나이와 한자어가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화갑(華甲) - 40세  
 ② 애년(艾年) - 50세  
 ③ 산수(傘壽) - 70세  
 ④ 망백(望百) - 99세

## 7. 다음 <보기>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감독관: 원고! 원고!

교수: (일어나며) 네, 곧 됩니다. 또 독촉이군.

감독관: (책상 쪽을 가리키며) 원고! 원고!

교수, 소파 한구석에 있던 가방을 집어 갖고서 황급히 책상에 가 앉는다. 가방에서 원고를 끄집어 내고 책을 펼친다.

감독관: 원고! 원고!

이윽고 교수는 번역을 시작한다. 감독관이 창문을 닫고 사라진다. 처가 들어온다. 큰 자루를 손에 들고 있다.

처: 어머니! 그렇게 별거뻔고 계시면 어떡해요. 막대기에 감긴 철쇄를 줄줄 끌어다 교수의 허리에 감아 준다.

- ① 사회 현실을 풍자한 부조리극이다.  
 ② 근대극이 뿌리를 내린 시기에 창작되었다.  
 ③ 전통적인 사실주의 극문학이다.  
 ④ 반공주의적인 목적극의 대본이다.

## 8. 다음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첨가’, ‘자음 축약’, ‘자음군 단순화’ 등과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에는 음운의 수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음운의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교체’는 전자에 해당하지만, ‘첨가’, ‘탈락’, ‘축약’은 후자에 해당한다.

- ① 담요      ② 밖  
 ③ 맨입      ④ 녀

## 9. 다음 중 제시된 단어의 뜻풀이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궁도련님: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 세상의 어려운 일을 잘 모르는 사람  
 ② 책상물림: 책상 앞에 앉아 글공부만 하여 세상 일을 잘 모르는 사람  
 ③ 윤뽕뽕이: 사리에 어둡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  
 ④ 대갈마치: 온갖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아주 야무진 사람



진행자: 오늘은 우리의 전통 선박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한 책인 《우리나라 배》에 대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설명한 책 내용이 참 흥미롭던데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판옥선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진행자: 자세히는 모르지만 임진왜란 때 사용된 선박이라고 들었습니다.

김 교수: 네,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전투함인데,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적합한 평저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행자: 아, 그렇군요. 교수님, 평저 구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네, 그건 밑부분을 넓고 평평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그 때문에 판옥선은 수심이 얇은 바다에서는 물론, 썰물 때에도 운항이 가능했죠. 또한 방향 전환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결국 섬이 많고 수심이 얕으면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김 교수: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선조들의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판옥선이 전투 상황에서는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궁금한데,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① 김 교수는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 ② 진행자는 김 교수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③ 진행자는 김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을 하고 있다.
- ④ 김 교수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17. 다음 글과 화자의 시점이 가장 유사한 것은?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못 갔다. 왕 서방은 몇 번을 복녀의 남편을 찾아갔다. 복녀의 남편도 때때로 왕 서방을 찾아갔다. 둘의 새에는 무슨 교섭하는 일이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밤중에 복녀의 시체는 왕 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 시체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 서방, 또 한 사람은 어떤 한방 의사. 왕 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 십 원짜리 지폐 석 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한방의의 손에도 십 원짜리 두 장이 갔다. 이튿날 복녀는 뇌일혈로 죽었다는 한방의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가져갔다.

- 김동인, <감자>

- ①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잇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명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 황순원, <소나기>

- ② 어머니가 그 꽃을 곧 내버릴 줄로 나는 생각했습니다마는 내버리지 않고 꽃병에 꽂아서 풍금 위에 놓아 두었습니다.

-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 ③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가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 김유정, <동백꽃>

- ④ 그날 밤에도 몹시 추웠다. 우리는 문을 꼭꼭 닫고 문틈을 형겅으로 막고 이불을 두꺼워 덮고 꼭꼭 붙어서 일찍 잤다.

- 전영택, <화수분>



